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헬스케어, 최근 DX사례와 바이오벤처 동향

2021. 08. 16. **Vol.** 403

K | D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1.08.16 Volume 403

CONTENIS



포커스

•	헬스케어,	최근	DX사례와	바이오벤처	동향		1
---	-------	----	-------	-------	----	--	---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Teladoc, 높은 2분기 실적을 통해 바라본 가상진료의 미래4
•	영국 MHRA, AI를 활용하여 기술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4
•	독일 Gematik, 개방형 커뮤니케이션인 Matrix 플랫폼으로 전환5
•	데이터센터, 예측 진단과 데이터 기반 진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 5
•	태국, 5G 기술로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6
•	AI, 인간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대응체계 필요 ······· 6



4대 보건산업

•	미국 NIST, 바이오제약 혁신에 1억 5,300만 달러를 투입7
•	미국 CDC, COVID-19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 경고7
•	영국, 유전체 시장 규모 50억 파운드 상회
•	유럽 Siemnes Healthneers, COVID-19 테스트에 대한 EU 수요 급증 ······ 8
•	유럽 EC, COVID-19와 변이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에 1.2억 유로 지원9
•	일본,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자국 백신개발의 문제점9
•	중국, '20년 스킨케어 화장품 산업 수출입 동향10
•	자가관리 의료 만성직화의 증가로 시장이 크게 화대된 전망



●<!!── 헬스케어. 최근 DX사례와 바이오벤처 동향

과학기술의 발달로 '10년 이후 의약 모달리티(modality)의 다양화와 디지털 전환(DX)·인공지 능(AI)를 통해 연구개발 방법과 혁신 프로세스가 크게 변화하면서 유전자 치료, 게놈 편집, AI, 머신러닝까지 1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 세계의 건강·의료 니즈를 흡수하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의료분야는 미국을 중심으로 의료벤처에 M&A를 비롯한 거액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mRNA의료, 게놈 편집·유전자 치료 같은 의약 모달리티의 다양화와 및 AI의료기기, 액체생검을 비롯한 건강·의료 관련 혁신 동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1] 개요

- COVID-19 팬데믹과 함께 등장한 mRNA백신의 성공이 바이오기술에 대한 장기투자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면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
 - 바이오 분야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서 탄생한 지식재산이 그대로 비즈니스의 코어가 되는 한편 실용화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분야
 - 신약개발의 경우 정부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존재해 참여 장벽이 높고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투자한 자금회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높은 확률로 혁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필요
 - 이미 미국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을 통한 제1차 바이오벤처 설립기인 1980년경부터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했고 '00년대 바이오 의약품이 성공을 거두며 더욱 가속・발달
 - 한편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의약 모달리티(Modality)의 다양화 사례는 'mRNA의약,' '게놈편집·유전자치료,' '세포 치료제(CAR-T, CAR-NK),' '디지털 치료제(DTx)'가 대표적
 - 또한 건강·의료DX는 '액체생검,' 'AI의료기기,' '웨어러블·매립형 디바이스,' 'AI·로봇 등을 통한 자동화,' '차세대 시퀀서'가 대표적 사례
 - 주목할 점은 이들 대부분의 트렌드를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견인한다는 점으로 대체로 대학 등의 혁신 시즈(seeds)를 스타트업과 연결하고,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사회에 환원

[2] 의약 Modality의 다양화

■ COVID-19백신 중 mRNA를 약물로 투여하고 의도한 단백질을 체내에 생성시켜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mRNA의약품이 최초로 실용화되었으며, 의약 Modality의 다양화 추세

- 주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 DNA를 도입하는 유전자 치료와 비교해 mRNA는 안전성이 높고 타깃의 유전자 배열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대상 단백질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계하고 제조가 가능한 것이 장점
- COVID-19 백신 개발과정에서 바이러스의 RNA배열이 공개된 후 66일 만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mRNA의 장점을 활용
- 한편 게놈 편집·유전자 치료는 게놈 편집기술을 응용해 고기능 물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미생물의 개량, 농수축산물의 품종개령, 질병의 유전자 치료 등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
- 유전자 치료는 게놈 편집을 이용하면 특정 유전자의 기능소실이나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변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의 유전자 치료 실현도 가능
- 세포치료는 키메라항원수용체(CAR)로 불리는 항체의 항원결합부위와 T세포 수용체의 세포내 도메인을 결합시킨 분자를 T세포에 발현시켜 암에 대한 항체의 특이성과 T세포의 세포 상해성, 증식성을 이용하는 CAR-T세포요법이 주목
- 미국은 '17년 스위스 노바티스社 킴리아를 시작으로 5개의 CAR-T 세포치료 승인을 완료
-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DTx)란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 SW·프로그램을 사용해 치료에 개입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앱이나 VR용 SW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증거에 입각해 규제 당국의 인가를 받는다는 점이 소위 건강증진 앱과 차별화
-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장기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과정에 환자 본인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적합하고 기존의 약품·의료기기로 치료가 곤란한 질환, 환자에 대한 효과를 기대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진료 연기에 대처한다는 측면도 있어 '20년 미국에서는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에 대한 긴급사용 허가를 포함해 7개의 DTx가 출시

[3] 건강·의료 관련 혁신 동향

- 액체생검은 저침습 또는 비침습적으로 채혈한 혈액이나 체액 속 생체유래 바이오 마커 등을 통한 진단·검사로, 혈액 속을 순환하는 암세포 혹은 암세포에서 유리한 핵산을 검출해 단순히 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암세포의 유전정보를 포함한 성질도 파악
 - 액체생검에 이용되는 생체 유래 바이오 마커는 혈액이나 소변 속 세포, 핵산이 대표적이며 현재 암은 주로 혈액 속 종양검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조직생검의 침습성, 시간적·공간적 불균일성의 문제를 회피
 - 예를 들어 암 조기발견을 위한 순환종양세포(CTC) 기반 액체생검은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전이성 대장암 등에서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임상검사로 FDA가 승인

- 게놈의료가 고형 종양부 뿐만 아니라 혈액에서 샘플링하는 경우도 액체생검이며 소아암. 원인불명의 암, 혈액암 등에서도 연구는 동등한 성과를 도출
- 신약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제약업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프로세서의 DX)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 게놈, 각종 오믹스, 리얼월드 데이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얻는 바이털 사인 등 의료관련 데이터, 의약품이나 화합물의 구조, 생리활성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 입수와 빅데이터 기술. AI의 발전으로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신약개발 프로세스가 변혁
 - AI를 활용해 창제된 화합물의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AI신약개발은 착실하게 실용화되고 있으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앱 등 디지털 치료제(DTx)도 활발

[4] 바이오 벤처에 대규모 투자자금 유입

- 세계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벤처자금이 급증하고 동시에 바이오테크 분야는 투자가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19년 한 번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 받은 52개 메가 라운드가 등장하는 등 '20년 바이오시장의 투자관련 지표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 의약분야 스타트업은 파이프라인형(자사개발)과 플랫폼형(시즈 도출·라이선스형) 2종류 외에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모두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형도 다수 존재
 - 의약 모달리티의 다양화로 제약회사는 독자노선을 고집하기 어려워지고 mRNA의약을 연구개발해 온 벤처기업처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형 벤처기업의 존재감이 커질 전망
 - mRNA의약처럼 미충족 수요(unmet needs)에 대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를 치환할 잠재력이 있는 기술에는 공동 연구개발·전력제휴 등을 통해 대형 제약회사가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실제로는 파이프라인형과 하이브리드가 되는 양상
 - 실제로 mRNA의약을 연구개발하는 각사의 파이프라인에는 감염증 백신, 암 백신, 단백질 의약품 대체 등이 있고 COVID-19 팬데믹으로 그 가치가 드러내면서 기업 가치는 급상승
 - '15년 전후부터 대형 제약회사와 AI벤처, AI신약개발 벤처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휴 관계는 대부분 설립한지 10년 이내의 신흥 벤처기업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
 - mRNA약품이나 AI·로봇, 차세대 시퀀서 등의 플랫폼 기술계열 벤처는 상장 없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 준비기간(10년 후)을 충분히 가지면서 유니콘이 되는 과정을 확립
 - 다양한 암을 조기 검출하는 혈액검사 'Galleri'를 개발한 Grail社의 경우 대규모 임상시험을 위해 제약회사와 아마존으로부터 9억 달러를 조달하는 등 연구에 거액의 자금이 유입

[科学技術振興機構研究開発戦略センター, 2021.07.22.; 首相官邸, 2021.03.29.]



■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Teladoc. 높은 2분기 실적을 통해 바라본 가상진료의 미래

- 미국 가상진료 및 원격의료 솔루션업체인 텔레닥헬스(Teledoc Health)는 '21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한 5억 300만 달러로 급성장했으며, Teledoc Health의 급성장은 가상진료의 미래 성장성을 시사
 - Teledoc Health의 '21년 상반기의 순손실은 3억 3,350만 달러로 전년도 상반기 순손실 규모 5.53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Teledoc '21년 2분기 방문자수는 1차 팬데믹 기간 중인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한 350만명을 기록
 - 시장조사기관 CB Insights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진료 관련 '21년 2분기 투자는 1분기에 비해 17%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169%나 증가하는 등 원격의료 분야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 또한 '21년 2분기 중 워격의료 관련 M&A는 35건으로 이 중에서 워격 정신치료 관련 M&A 비중이 40%를 차지

[Insider Intelligence, 2021.07.30.; HIT Consultant, 2021.07.23.]

영국 MHRA, AI를 활용하여 기술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

-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영국 보건시스템의 국제적인 상호운용성과 협력 구조를 개선한다고 발표
 - MHRA는 '21~'23년 동안 추진할 의약품 제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국 전역의 보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
 - 특히 FY'21~'22 기간동안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구형 시스템을 대체하여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된 IT 및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을 공개
 - MHRA는 영국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안전하게 환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임상시험과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
 - 이번에 발표된 '21~'23 계획은 영국을 글로벌 리더의 위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18~'23 계획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구성

[Digital Health, 2021.07.07.; Health Pits, 2021.07.08.]



독일 Gematik, 개방형 커뮤니케이션인 Matrix 플랫폼으로 전환

- 독일 의료시스템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독일 국영기관인 게마틱(Gematik)은 전국 의료 전문가와 조직 간의 인스턴트 메시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매트릭스(Matrix) 플랫폼으로 전환
 - * Matrix플랫폼은 최대 150.000개의 의료 기관이 메시지. 데이터. 이미지 및 파일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도구 및 프로토콜을 독일 개발자에게 제공
 - Gematik에 따르면 디지털 도구로의 이러한 전환은 기존 플랫폼의 경우 폐쇄형 사일로(silo)에서 수행되어 서로 다른 전문가와 조직 간의 상호 운용성이 부족하고 매우 민감한 환자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
 - Gematik은 Matrix를 사용하여 독일 의료 시스템에서 인스턴트 메시장의 새로운 표준인 TI-Messenger를 구축할 예정이며, 의료 산업은 TI-Messenger를 사용하여 의료 기관과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앱을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앱은 상호 운용 가능
 - Matrix 사용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COVID-19 위기 동안 이 회사는 수요가 10배 증가했으며 현재 사용자 수는 3천만 명을 돌파

[ZDNet, 2021.07.23.; VentureBeat, 2021.07.27.]

데이터센터. 예측 진단과 데이터 기반 진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

-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보안 분야가 의료 영역에 적극 활용되면서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는 '30년의 의료 현장에 예측적 진료와 데이터 기반 분석정보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30년이 되면 전 세계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및 데이터 기반 분석 기술에 힘입어 보다 적극적이고 예측에 기반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병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부터 X-ray 사진이나 초음파 사진, 자기 공명 스캔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되며 의료진 간의 숙련 격차를 극복하는데도 사용
 - * 영국건강교육(HEE) 연구에 따르면, 의료정보학 분야는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0년까지 672% 증가 필요
 - 디지털 전환, 모바일 디바이스 및 IoT 기술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는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DCD, 2021.07.21.; AI Multiple, 2021.01.08.]

태국, 5G 기술로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 태국은 5G 기반 지능형 의료정보 및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Mahidol 대학 공학부, Naresuan 대학 의학 및 공학부, 공공보건부, 아웃소싱 회사인 Chanwanich와의 협력 하에, 5G 통신망 기반의 지능형 의료 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 '태국 5G 헬스케어 데이터 공간(Thailand Health Data Space 5G)' 프로젝트는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의 R&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 태국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는 진단, 진료 후 처치, 재활과 응급 치료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병원 간 전송 등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형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 5G 광대역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으로 태국의 국민 모두 모바일 디바이스로 접속할 수 있는 'Med Care'라는 이름의 원격의료 플랫폼도 이 프로젝트 하에서 개발
 - Med Care는 △전문의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진단시스템 △개인 의료정보와 사용가능한 의료자원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자를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가정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

[Healthcare IT News, 2021.07.28.; Bloomberg, 2021.07.15.]

AI, 인간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대응체계 필요

- 인공지능(AI)의 구축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헬스케어 분야에 반영될 경우 불평등과 차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편견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I의 디자인부터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대응체계가 필요
 - AI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편견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샘플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는 편견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에 반영되어 있는 편견 등이 존재
 - 또한 △데이터 과적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견 △극단적인 상황이 반영된 사례가 포함된 데이터에 의한 편견 등 총 5가지로 세분화
 -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 AI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단계에서 포용적이어야하며 △미래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해야하며 △인공지능 관련 제품을 출시하기전에 사용자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하고 △STEEPV를 반영한 분석의 실행이 필요
 - * STEEPV은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 (economic), 환경적(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가치(values)의 첫글자 조합

[World Economic Forum, 2021.07.19.; the BMJ, 2021.03.16.]





4대 보건산업

미국 NIST. 바이오제약 혁신에 1억 5.300만 달러를 투입

- 미국 상무부 기술관리국 산하의 국립기술표준연구소(NIST)는 국립바이오의약품제조혁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euticals, NIIMBL)에 1억 5.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
 - NIIMBL은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생물학적 공급원에서 추출한 백신, 단일클론항체, 유전자 치료 및 다양한 생물학적인 의료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Manufacturing USA'의 지원을 받는 기관
 - NIIMBL에 투입하는 자금은 7.0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지원과 미국구조계획 (American Rescue Plan)에 기반한 8,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으로 구분
 - 7.000만 달러는 미국 내 바이오 의약산업을 유연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과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지원이 실행되며, 8,300만 달러는 미국 구조계획의 일환으로 미래의 COVID-19 확대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입될 예정

[Manufacturing USA, 2021.07.14.; NIST, 2021.07.14.]

미국 CDC, COVID-19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 경고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 1998년 독감, 천연두보다 더 감염력이 강하며, 수두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
 - CDC의 발표에 따르면, COVID-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COVID-19에 비해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입원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
 - CDC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된 사람의 전염력이 백신을 맞지 않고 확진된 사람의 전염력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한 1억 6,200만 중 35,000명이 매주 돌파감염될 수 있다고 추정
 - 백신접종은 여전히 COVID-19에 의한 심각한 증상 발현율과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과정 중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

[NPR, 2021.07.29.; UN News, 2021.07.30.]

영국. 유전체 시장 규모 50억 파운드 상회

- 영국 유전체(Genome) 시장은 50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유전체학 부문은 154개사가 참여하는 중으로 5.000명 이상의 고도로 숙련된 개인을 고용하고 있는 등 '게놈UK(Genome UK)'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
 - * 영국의 유전체 관련 기업의 투자 규모는 영국의 생명 과학 분야 투자의 34%를 차지
 - 영국의 바이오산업협회(BioIndustry Association, BIA), Wellcome Sanger 연구소, 의약품 개발 캐터펄트(Medicines Discovery Catapult, MDC)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영국 유전체학(Genomics Nation)'에 대한 보고서 발간
 - 영국 유전체 부문은 △방대한 규모의 학문적 우월성 △연구기관 △국민보건서비스(NHS) △정부 △영국 바이오뱅크와 게노믹스잉글랜드(Gemonics England)가 보유한 고유 정보 원천 등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154개의 기업과 고도로 숙련된 5,000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
 - 영국의 유전체 관련 기업의 72%는 잉글랜드 동부,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1,4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임상진단솔루션업체인 랜독스(Randox)社가 소재한 지역인 북아일랜드는 유전체 부문의 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

[PharmaTimes, 2021.07.30.; Pinsent Masons, 2021.07.15.]

유럽 Siemnes Healthneers, COVID-19 테스트에 대한 EU 수요 급증

- 주로 유럽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멘스헬스니어스(Siemens Healthineers)의 신속 항원테스트 판매가 '21년 3분기(3~6월)에 전분기 대비 200% 증가한 6억 유로 달성
 - Siemens Healthneers의 COVID-19 신속 항원 진단기기 매출은 지난 3개월 동안 COVID-19 진단기기 판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 급증
 - COVID-19 신속 항원 테스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애보트(Abbott)社 및 퀴델(Quidel)社와는 달리, Siemens Healthneers는 주로 유럽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
 - Siemens는 COVID-19 관련 비즈니스의 성장세가 올해 4~6월에 정점을 찍고 빠르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호주 지역과 같이 백신 접종이 적은 지역을 목표시장으로 검토했으나 현재 유럽시장보다 수요가 낮은 것으로 분석
 - Siemens Healthneers는 3분기 매출 호조세를 반영하여 '21년 연간 성장률 목표를 17%에서 19%로, 매출액 증가율 목표 역시 5%에서 8%로 상향 조정

[Medtech Dive, 2021.07.30.; EIN Presswire, 2021.07.29.]



유럽 EC, COVID-19와 변이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에 1.2억 유로 지원

- EU집행위원회(EC)는 유럽 최대의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Horizon Europe)의 재원을 기초로 COVID-19와 변이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11개 신규 프로젝트에 1억 2천만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
 - 11개의 신규 프로젝트는 EU 역외 23개 국가의 38개 연구팀을 포함하여 40개국의 312개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COVID-19 코호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에 집중
 -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이외의 프로젝트는 △COVID-19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자간 연구 데이터, 경험 및 연구 자원의 공유와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연구 인프라 강화에 사용될 것으로 계획
 - 신규 프로젝트는 유럽 각국의 팬데믹 대응 노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 연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유럽보건긴급준비및대응기관(HERA)'의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

[European Commission, 2021.07.22.]

일본,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자국 백신개발의 문제점

- 미국은 COVID-19 백신개발 프로젝트인 '워프스피드(Warp speed)' 작전을 통해 유력한 백신 후보 물질을 보유한 제약회사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포함을 연방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한 반면, 일본은 국가차원 정책 지원이 미비
 - 미국의 백신개발 대상기업은 6곳으로 기업 당 1,100억 엔에서 6,400억 엔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3社가 FDA로부터 미국 내 긴급사용 승인을 취득
 - 반면 일본은 백신개발 관련 비용을 모두 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해 대형 제약회사가 철수한 경위가 있으며 90년대에 발생한 예방접종 부작용 집단 소송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기접종 폐지와 국내수요 감소로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미국은 '04년 의료IT 이니셔티브 공표 후 정보 수집과 민간이용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약된 데이터의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료 및 건강정보의 민간이용을 금지
 - 일본 정부는 '21년 5월 '의약품산업비전'을 8년 만에 개정하고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나 제약업계는 백신매입 제도 창설, 승인심사기간 단축, 약사승인제도 완화 등을 요구

「明治安田総合研究所, 2021.07.29.; NHK, 2021.07.21.]

중국, '20년 스킨케어 화장품 산업 수출입 동향

- 중국 시장조사기관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년 중국의 미용화장품 및 스킨케어 산업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1.07% 증가한 173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COVID-19 영향으로 수출액은 21억 7,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9% 감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09년부터 '20년까지 중국의 미용 화장품 및 스킨케어 산업의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한 반면, 동기간 동안의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스킨케어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각 국가의 엄격한 규정은 중국의 스킨케어 산업의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킨케어 무역수지는 '20년 151억 6,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중국 스킨케어 산업 기업은 국내외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스킨케어 시장 상위 6개 브랜드는 23.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 로레알파리(巴黎欧莱雅)와 바이췌링(百雀羚)은 각각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국 로컬브랜드는 자연당(自然堂, 3.4%)과 바이췌링(百雀羚 4.5%)이 로컬 시장을 양분

[前瞻产业研究院, 2021.07.14.; 新浪科技, 2021.08.02.]

자가관리 의료, 만성질환의 증가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당뇨병,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병의 확대, 자가관리 의료기기의 디지털화, 노년 인구의 증가, 건강관리에 대한 경각심 증대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자가관리 의료기기시장은 '21~'23년 기간동안 연평균 8% 이상 증가하여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자가관리 의료기기 10개 중 6개는 당뇨병 환자가 구매하기 때문에 당뇨병 관련 자가관리 의료기기가 메드테크 회사에 가장 수익성 있는 부문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1,790만명이 심혈관계 질환(CVDs)으로 사망하는데, 이에 따라 혈당 수치나 혈압 및 맥박수와 같은 중요한 건강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각국의 정부와 보건의료 당국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성질환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교육, 건강에 대한 경각심 제고,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도 수요확대 요인
 - 북미 지역이 전 세계 자가의료기기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자가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 지역은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의 증가로 자가의료기기의 수요가 증가

[BioSpace, 2021.08.02.; Medical Device Network, 2021.06.29.]